

예술과 사회에서의 조화의 의미

일시; 2012년 5월 12일(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영국 리버풀 워커 아트 갤러리(Walker Art gallery, Liverpool, U.K)

진행자; 전하현(런던 시인의 문화학교, Rp' Institute)



토론 참석 대담자,
박성지 (첼시 fine art 3년), 조광현(홍익대학원 도예과), 김영달 박사(전기공학)

주제/ 예술과 사회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조화의 의미
시간/

제 1토론 주제 조화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조화(harmony)의 개념

concordance, concurrence, congruity, consensus, correspondence, union

1. a state of agreement or accord; unity.

balance, symmetry

2. a pleasing or orderly relation among the parts of something.

조화가 주는 의미의 함정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조화를 추구하지만 이 조화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

고대 사회의 조화의 의미
미분화된 사회 속에서 특정 집단, 특정 대상, 특정 종교의 신을 중심으로 한 조화의 시대.
혹은 생존을 위한 조화

중세 사회에서의 조화의 의미,
근대 사회에서의 조화의 의미,
21세기의 조화의 의미

조화의 개념의 변화를 이해하기

하인리히 법칙
세대의 급속한 변천, 한 세대가 이제 30년이 아니라 3개월이다.
하인리히 법칙의 적용..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유사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발짝을 물러선 뒷걸음으로 조화를 도모한다.
〈김영달 박사〉

요즘에 조화라는 의미는 비화음적인 것이 아닌가? 〈박성지〉

그것은 카오스(혼돈과 질서)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영달 박사〉

문제는 카오스를 인식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닌가?
현 세대에선 똑같이 보이는 것을 변별화, 차별화 하고 난 후, 다시 그것을 자기의 새로운 시각
으로 통합해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원소적 입장으로 본다면 다이아몬드와 탄소는 똑같은 원소를 갖고 있다. 만약에 원소라는 입장에서 보면 똑같지만 그것 들은 배열에 따라 연필심과 다이아몬드로 분열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갖기 위해, 똑같은 속성소를 갖고 있는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변별화 차별화를 위해 자기를 변화시키려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전하현 강사〉

욕망의 세분화 현상

새로운 욕망의 발생에 따른 조화의 분열
새로운 문화 시장의 급성장은 욕망의 확장에 비례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세계화 현상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왜?

새로운 욕망의 발생에 따른 세계의 변화가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고 있다.
이 욕망이 만든 세계 시장의 변화는 경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다시 사회변화를 시키고 있다. 물론 150년 전의 마르크스의 유물론이나 경제시각으로 설명할 수 없을뿐더러
현대 경제학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기존 마르크스의 소외와 에리히 프롬의 소외에서
인간이 지식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현상 속에서의 나타난 개별화 문제,
만약에 인간이 지식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가 통합되기 위해선 반드시 상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식의 구축이 불가능하다. 상식이 되기 전에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 구 지식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는 조화를 기대할 수 없고 기대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조화란 항상 중심축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중심축을 누가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과학이 상식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은가? 조화의 추구는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가 아닌가?”
〈박성지의 제기〉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영구적으로 머물 조화나 궁극적인 조화를 기대해선 안된다. 상
황윤리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

끊임없이 변화해야 가는 시대에선
조화는 조화를 깨기 위해서만 존재해야만 한다.
새로운 생성을 위한 조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